



중앙일보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The JoongAng Plus

더중앙플러스가 더+ 풍성해집니다 >> 2면

한국발 징용해법 맞춰 일본선 수출규제 푼다

‘재단 통한 배상’ 공식발표 나오면
일본, 셔틀외교 재개도 선언 방침
한국 진출 일본기업 모금도 추진
일각 “피해자 설득 추가결단 필요”

한국 정부가 조만간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재단(이하 피해지원재단)을 통
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공식 발표하
면 일본 정부는 이에 호응하는 조치로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편입
▶셔틀 외교 재개의 세 가지 조치를 즉
각 선언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복
수의 외교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소 시
차를 두고 한국 내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피
해지원재단의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참여는 기업의 자발
적 의사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
이다.

이 기부금에는 현시점에서 강제징용
배상 재판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
업과 일본제철은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
다. 하지만 자동차업체 A사, 첨단소재

업체인 B사, 금융그룹 C사, 화학업체 D
사 등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의 주요 대기업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
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도 한국 정부의 해결안 공
식 발표 뒤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높아
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 내 분
위기가 악화하면 기부금 참여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
통은 이날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내부
상황을 정리한 뒤 공식 해결안을 발표
하면 바로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 날 일
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
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
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는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자국 안보에 위
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부품을 타
국가에 수출 시 허가 신청이나 절차 등
에서 우대해 주는 국가)에서 제외했다.

도쿄=김현기·이영희 특파원
kim.hyunki@joongang.co.kr
▶▶ 3면 ‘강제징용’으로 계속

UAE, 한국에 37조원 투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왼쪽)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민방문 중 정상회담 무함마드 “약속 지키는 한국 신뢰”

2009년 12월 뿌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씨앗이 2023년 1월,
UAE의 대(對)한국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유지라는 열매로 돌아왔다. 이
열매는 원자력·에너지·기업투자·방산
등 4대 핵심 분야를 넘어 항공우주나 바
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의 또 다른 씨앗
이 될 가능성을 심었다.

UAE를 국민방문 중인 윤석열 대

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의 도중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
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
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무
함마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
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
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
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
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중 편한 시간에 한
국을 방문해 달라며 무함마드 대통령
을 초청했고,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
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으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
고 답했다.

아부다비=권호기 자
kwon.ho@joongang.co.kr
▶▶ 5면 ‘UAE’로 계속

한국판 ‘차터스쿨’ (기업 참여 공립고) 내년부터 문 연다

이주호(사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리셋코리아 교육분과
의 포커스 인터뷰에서
“각 지역에 좋은 공교
육 모델을 만들어 학교
교육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는 내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교
육청 등이 협약을 맺고 함께 운영하는 공
립고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김천혁
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고교, 원주혁신
도시에는 한국관광공사 고교 등이 들어서
는 형식이다. 이들 학교는 교사 정원이나
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IB(국제바칼
로리아) 적용 등 교육과정 자율성도 보장
한다. 미국 차터스쿨처럼 정부가 예산만 지
원하고, 학교 운영은 자사고와 같이 자율
에 맡기는 방식이다. ▶▶ 관계기사 25면



INSIDE
미국·중국에 모두 통한다
신냉전 뚝을 무기는 한류
뉴 애치슨라인 시대 ▶▶ 8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A WORLD OF ENCHANTMENT

새하얗게 내린 눈 속에서 OMEGA의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스피드마스터 문위치 타임피스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유선과 고도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선보이며, 브랜드의 탁월함을 위한 끝없는 열정을 기념합니다. 역사적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업데이트된 전설적인 스피드마스터 문위치는 상상력으로 가득한 미법 같은 거울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OMEGA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 워치메이킹의 혁신을 선도하는 브랜드입니다. OMEGA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 워치메이킹의 혁신을 선도하는 브랜드입니다.

다보스포럼 이사장 “한국, 신지정학 시대 핵심 역할 기대”

(WEF·세계경제포럼)

“한국은 신(新)지정학 시대에서 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르게 브렌데 국제경제포럼(WEF) 이사장은 1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다보스포럼에 앞서 지난 13일 중앙일보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이미 세계를 이끌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과제로 “국제사회가 ‘탈동조화’ 바람을 멈추고,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포럼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수십 년 중 가장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열린다.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산업 정책은 경제협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에게 더 잘 협력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과 발전, 지속 가능한 결과를 끌어내는 데 있어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글로벌 경제성장 공동체’를 제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의 위기가 새로운 충돌로 악화해선 안 된다.

오늘 개막... 보르게 브렌데 인터뷰
탈세계화 정책에 경기침체 고통
위기 탈출 위한 경제 공동체 중요
한국, 기후·환경에서도 역할 할 것

세계경제포럼(WEF)이 16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장이 지난 10일 화상 브리핑을 통해 2023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EPA=연합뉴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중국과 유럽 간 교역은 균열과 단절을 향하고 있다. 서로 새로운 벽을 쌓고 보호주의의 길을 선택한다면 미래의 성장과 번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를 타개할 방법은.

“우리에게 ‘마술 지팡이’는 없다. 경험적으로 무역이 블록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이미 세계를 이끌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신지정학 시대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역 개방과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정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무역·투자에서 행정적 복잡성을 개선해야 한다. 무역 절차 단순화는 관세 면제보다 이익이 더 크다. 이번 포럼에서 100개국 이상이 글로벌 투자 절차 단순화 협상에 서명할 것이다. 리쇼어링 대신 아프리카·남미·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생산기지를 다각화해 글로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장을 위해 무역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미래 준비를 위한 또 다른 난제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국제사회는 2050년 ‘넷제로’(Net-Zero·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를 약속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 70여 개 기업이 처음으로 함께 움직인다. 애플·아마존 등이 ‘그린 공급망 선언’을 하고, 지속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항

공사만 운항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구매력이 다른 기업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강대국 간 정치적 긴장을 피하면서 환경·사회적 성과 개선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에 기대하는 향후 역할은.

“올해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대표단이 구성됐다.

 **보르게 브렌데**=1965년생. 노르웨이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 노르웨이과학기술대에서 경제·법·역사학을 전공했다. 노르웨이 외무·통상산업·환경부 장관과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의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WEF를 이끌고 있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조직 전체의 전략 개발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각국 정·재계 거물 2700명 참석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주제
올해로 53번째... 코로나 등 논의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된다.

15일 WEF에 따르면 각국 정부를 이

끄는 정치인·관료들 비롯해 기업인, 국제기구 수장, 학계 인사 등 2700여 명이 16~20일 이곳에 모여 당면한 세계의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로 53번째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은 세계 각국이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WEF 회의장에서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WEF를 찾은 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

통령은 지난 14일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포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대기업 경영인이 대거 동행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유력 인사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기대했다.

WEF는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1971년 처음 시작해 87년부터 WEF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고석현 기자

dongguk UNIVERSITY | 행정대학원

제44기 부·자 AMP

글로벌 통찰력으로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트렌드와 미래를 예측하여 자산가치를 증대시켜 드립니다!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재테크 및 은퇴, 노후 대비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



Tel. 02.2260.8572
www.dgureceo.com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부·자 AMP) 교육연구실

동국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구분	내용
교육구성	
교육기간	2023년 3월 14일(화) ~ 2023년 12월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 ~ 21:30 1월 1 ~ 2강좌 (석식 18:00부터)
교육내용	부동산 성공투자, 개발사례, 금융 재테크와 자산의 운용관리, 주식, 채권, 달러, 미술품 등 대체투자 전략과 사례 연구 등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23년 3월 13일(월)까지 선착순 접수
서류	입학지원서, 사진
접수방법	홈페이지 www.dgureceo.com
전화	02.2260.8572
F A X	02.2263.0363
이 메 일	reaceo@dongguk.edu
우 편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516호